

<미리 보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절차>

목차

1. 머리말
2.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도
 - 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 나.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절차
3. 맺음말

1. 머리말

국내에서 ‘동물보호’ 혹은 ‘동물복지’라는 단어들을 접하기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지만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돌보아 줘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인 도덕성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동물복지와 관련한 국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정세변화와 여론의 반영이라는 2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우선 국제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한-EU FTA 협상에서 가축에 대한 동물복지가 주요의제로 채택되었으며, 국외 동물복지 관련 비정부조직(NGO)들이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이 동물복지 관련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별 규제들은 결국 국제교역에 있어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의 경우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의해 축산을 바라보는 국민여론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동물복지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질병을 저감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동물복지 강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정세와 여론들을 감안하여 ‘12년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축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고는 ‘13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적용되는 돼지(양돈농장)의 경우 국외 인증기준들을 토대로 주요 인증기준의 내용을 파악하고 인증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자 한다.

2.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도

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복지 인증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13년부터 국내에서 적용될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국가에서 기준처럼 활용되는 영국과 미국 등의 돼지사육에 관한 동물복지 기준에서 제시하는 세부내용의 핵심은 사육시설과 사양관리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사육시설

사육시설에서는 양돈농가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사육단계별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깔짚의 제공
- ② 방사사육을 할 경우 1두당 약 330㎡의 면적을 제공
- ③ 스톨, 분만틀의 사용금지

사육밀도의 경우, 국내에서 일반 양돈농장에 적용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9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깔짚은 왕겨나 톱밥을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은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육면적 전체에 대해 깔짚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당 최소면적에 대해 깔짚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의 계절적 요인이나 추가 면적 공급 등을 고려할 때 방사사육을 실시하기 매우 어려우나 필수사항이 아니고 농가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방사사육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즉,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사육방식 중 하나가 방사사육이지 방사사육을 해야지만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토양오염 등의 문제로 방사사육에 대한 규제는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인증기준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다.

사육시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스톨, 분만틀의 사용금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양돈농가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임신돈의 경우 스톨사육이 금지되고 군사사육만 허용이 될 것인데 군사사육

에 대한 대표적인 시설은 크게 프리스틀 군사 사육시설(Free-access stall)과 전자식 군사 사육시설(Electronic sow feeder) 2가지로 구분된다(그림 1, 그림 2). 물론 이외에도 군사를 위한 다양한 사육시설들이 있으며 어떤 형태의 시설이든지 군사 사육을 한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프리스틀 군사 사육시설



〈그림 2〉 전자식 군사 사육시설

분만돈의 경우 분만틀 사용이 금지되고 분만 후 5일 이후부터 모돈이 움직일 수 있는 시설에서 사육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대체 사육시설을 활용하거나 방사하여야 한다(그림 3, 그림 4).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로는 타원형 분만틀, open pen 등 다양한 사육시설이 개발되어 있지만 기존의 분만틀 면적에서 추가면적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림 3에 소개되는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시설로 외국에서 개발된 시설에 비해서 추가면적 없이 기존의 분만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 분만틀 대체 분만돈 사육시설



〈그림 4〉 분만돈 방사 사육시설

(2) 사양관리

사양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리자의 지식과 실천이며, 가축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특히 신체절단에 해당하는 견치 절치, 단미, 거세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사양관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국가별 단체별로 적용수준이 상이하다.


영국의 경우 견치 절치, 단미 및 거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견치 절치와 단미는 문제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해당 기관에 보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견치 절치를 허용하며 생후 7일 이내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거세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사육여건이나 식(食)문화를 고려할 때 견치 절치와 거세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추후 지금의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혹은 고통 없이 거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된다면 이를 개정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견해들이 너무 다양하여 최종 고시로 확정될 때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나.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절차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절차는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절차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및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제출
- ② 인증신청서 접수 및 인증심사
- ③ 심사결과 통보 및 인증번호 부여
- ④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우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한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이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때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게 가축 사육내역과 판매내역 및 최근 1년간의 동물약품 구매량, 사용량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 사료공정규격에 따른 사용가능한 성분여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생활용수기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생산자	홍 길 동
	인증번호	동물복지-10-01-1-*
	전화번호	031-***-****
	품목(축종)	안심(돼지)
	농장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1 kg

<그림 5>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예

인증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들이 정해지며 이에 대해 부적합 항목이 없으면서 합계점수가 80점 이상(미확정)의 경우 적합판정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번호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받은 농

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그림 5와 같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3. 맺음말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가축의 스트레스가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에 기초할 때 축산분야가 동물복지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 설명한 내용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돈농가만이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증여부를 떠나 모든 양돈농가들은 동물복지 인증을 포함한 동물복지 관련 변화에 대해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양돈농장의 현실과 동물복지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 혹은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이다. 앞으로의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할 때 남들과 다른 차별화가 가능하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복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인증기준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